

# 우리나라 옷에 대한 現代人의 意識과 着用實態에 關한 研究

— 서울 地域을 中心으로 —

黃 春 燮

<目 次>	
I. 序 言	2. 우리 옷의 着用實態
II. 調查結果의 解析	3. 우리 옷에 대한 意識
1. 우리 옷의 購入 및 손질 現況	III. 提言 및 結語

## I. 序 言

### 1. 研究 目的

東方의 文化民族으로 오랜 歷史를 지닌 우리나라 固有服飾은 深度깊은 變化를 體驗한 우리의 國史와 함께 많은 變遷을 격어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時代別로 나누어보면, ① 原始期에서 新羅三國統一前까지의 固有服飾時代, ② 新羅統一에서부터 新羅末까지의 唐服飾影響期, ③ 高麗初부터 宋滅亡까지의 宋服飾襲用期, ④ 高麗元隸屬時代의 蒙古服飾影響期, ⑤ 明의 興隆으로부터 임진·병자호란까지의 明服飾影響期, ⑥ 丙子胡亂부터 甲午更張까지의 朝鮮服飾形成期, ⑦ 甲午更張으로부터 現代까지의 西歐服飾影響期<sup>1)</sup>로 크게 區分이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服飾文化의 命脈은 주로 우리나라 固有의 衣服과 中國衣服 또는 西洋衣服이 함께 存在하는 二重衣服生活期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오늘에 와서는, 1895년의 단발령과 함께 開化服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洋服<sup>2)</sup>에 의해 우리 옷은 밀리고 등한시 되는 傾向이 많아졌다.

國境을 넘어, 全世界 文化交流 速度가 매우 빨

라진 지금에, 民族固有의 衣生活만을 고집할 수도 없지만 기후와 주택구조, 생활양식이 다른 外國의 옷을 우리 衣生活의 全部로 여길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나라 옷의 現況을 살펴 把握하고 우리옷에 대한 現代人의 意識을 調查分析하여 봄으로써, 우리의 性主體과 民族文化가 담긴 民俗衣裳으로 길이 保存되어 民族象徴은 물론 世界衣類文化發展에 이바지 해야 할 「우리 옷의 내일」을 設計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研究 內容

限定된 壽命을 지닌 衣服이 着用되고 保存되어 衣類文化發展에 寄與하려면,

첫째, 그 製作法이 잘 傳承·研究되어서 製作供給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製作된 옷은 着用되어 衣服으로서의 役割과 價値를 지녀야 하며,

셋째, 그 審美的·機能的·文化的 役割과 價値觀念이 傳達·存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선 우리 옷의 구입과 손질의 現況을 調查하여 그 製作過程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衣服의 役割과 價値面에서 찾아하고 있는 우리 옷의 價値와 그 存續性을 알기 위해 우리 옷의 現

1)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한국연구원, p.30.

2) — ; 조선일보, 1969.9.28日字.

着用實態 및 우리 옷에 대한 意識을 調査하여 그 結果를 해석·고찰하였다.

### 3. 研究方法

○ 조사도구 : 위에서 言及한 調査內容이 담긴 質問書를 作成해서 使用하였다. 本調査用 質問書는, 9항목의 자유기술형식과 8항목의 선다형을 쓴 예비조사에서 얻은 내용을 25문제로 분류 작성한 것으로 選多型和 약간의 自由記述型을 썼다.

○ 調査時期 및 節次 : 예비조사는 1975년도 6월 초순부터 6月末까지, 本調査는 7월 중순부터 9월末까지 실시했으며 調査者와 K大學校 女學生들이 戶別訪問, 面接調査를 하였다.

○ 調査對象者 및 범위 : 調査區域은 서울特別市行政區域에 따라 11個區로 나누어, 1個區當 1—4個洞씩 임의로 抽出한 23個洞이며 應答者의

性格은 <표 1>과 같다.

○ 자료처리 : 얻어진 資料는 一般的인 分析法에 따라 問項別로 연령별·성별·월수입정도별·직업별로 分類해서, 그 분류내용 범위에 맞추어 백분율계산을 한 다음, 그 중에 解析의 가치가 있는 것 만을 選定解析하였다.

## II. 調査結果 및 解析

### 1. 우리 옷의 購入 및 손질 現況

#### (1) 우리 옷의 購入 方法<表 2>

<표 2>에서 製作方法을 크게 分類해보면, 「집에서 만드는 경우」와 「맞추는 경우」 그리고 「기성복을 사오는 경우」의 3가지를 들 수 있겠다.

<表 1>

應答者의 性格

성 별 및 부	남		여		기혼		미혼		계											
	N	%	N	%	N	%	N	%	N	%										
	690	48.9	722	51.1	482(남)	34.1	502(여)	35.6	208(남)	14.8	220(여)	15.5	1,412	100						
연 령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계					
	N	%	N	%	N	%	N	%	N	%	N	%	N	%	N	%				
	240	17.0	230	16.3	280	19.8	212	15.0	188	13.3	199	14.1	63	4.5	1,412	100				
직 업	전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기 산 본 업	학 생	주 부	무 직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80	5.7	86	6.1	202	14.3	52	3.7	24	1.7	302	21.4	400	28.3	250	17.7	16	1.1	1,412	100
교육 정도	대학원졸		대 졸		고 졸		중 졸		국 졸		무 학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4	0.3	309	21.9	274	19.4	466	33.0	192	13.6	145	10.3	22	1.5	1,412	100				
생 육 지	서울		경 기		충 청		경 상		강 원		전 라		제 주		북 한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630	44.6	144	10.2	120	8.5	203	14.4	52	3.7	150	10.6	14	1.0	45	3.2	54	3.8	1,412	100
가 월 수 정 입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146	10.4	463	32.8	408	28.9	221	15.6	141	10.0	33	2.3	1,412	100						
종 교	불 교		기 독 교		천 주 교		유 교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N	%						
	376	26.6	236	16.7	80	5.7	676	47.8	44	3.2	1,412	100								

<表 2> 우리 옷의 製作 및 購入 方法

항목	N	%
① 집에서 만든다	56	4.0
② 한복집에 마춘다	904	64.0
③ 기성복을 사온다	252	17.8
④ 마추기도 하고 집에서 만들기도 한다	34	2.4
⑤ 기성복을 사오기도하고 마추기도 한다	112	7.9
⑥ 기성복을 사오기도하고 집에서 만들기도 한다	21	1.5
⑦ 마추기도하고 사오기도하고 만들기도 한다	11	0.8
무응답	22	1.6
계	1,412	100.0

항목번호 ①·④·⑥·⑦번에 肯定을 한 응답자는 집에서 만들어 입은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全應答者의 8.7%에 불과하다. 그러나 ②·④·⑤·⑦번에 肯定을 한 응답자, 즉 맞추어서 입은 經驗이 있는 사람들은 全應答者의 75.1%나 되며, 기성복을 입어 본 사람들도(③·⑤·⑥·

⑦번에 肯定을 한 應答者) 全應答者의 28%나 되는 상당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요즘은 우리옷은 거의가 전문가의 손에 의해 製作되고 있는 傾向임을 볼 수 있다.

(2) 우리옷의 손질 現況<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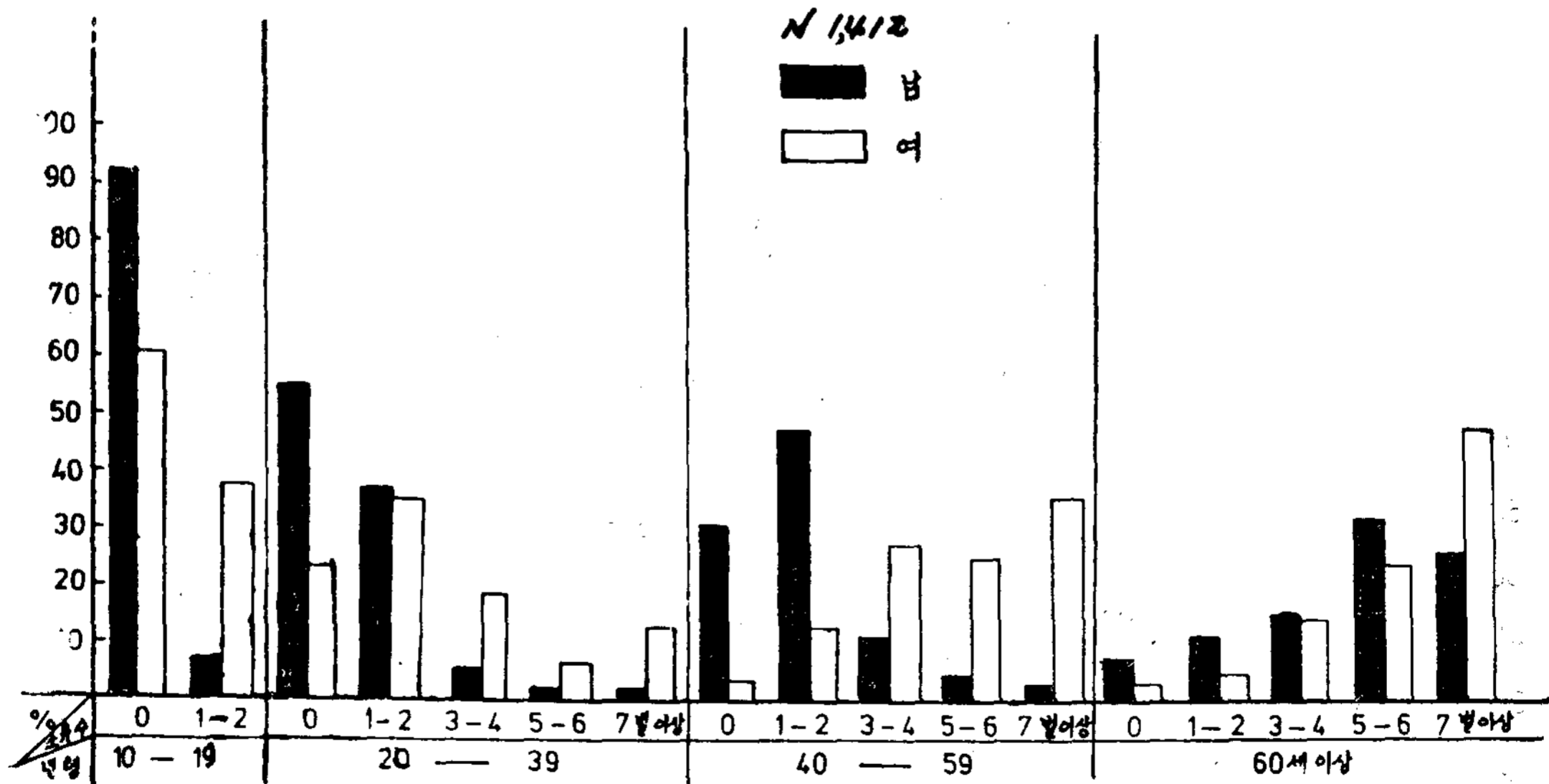
「세탁소에 맡긴다」와 「집에서도 하고 세탁소에서도 한다」를 합한 68%의 경우가 세탁소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우리옷의 손질 역시 멀어져간 다듬이 소리처럼 가정밖, 전문가의 손을 많이 빌리고 있다 하겠다.

<表 3> 우리옷의 손질은 어디서?

항목	N	%
집에서 한다	425	30.2
세탁소에서 한다	272	19.3
물빨래는 집에서, 마른 세탁은 세탁소에서 한다	688	48.7
기 타	12	0.8
무응답	14	1.0
계	1,412	100.0

<圖 1>

우리옷의 所有 程度



2. 우리옷의 着用 實態

(1) 우리옷의 所有 程度<圖 1>

所有하고 있는 우리옷의 벌 수는 평균 男 0.9 벌, 女 2.1벌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보다 高齡층에서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2) 우리옷의 着用 程度<표 4>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착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代의 少年期에서는 「우리옷을 전혀 입지 않는다」가 지배적이고, 20-30代가 되면 조금씩 입기 시작하여 「자기 衣生活의 1% 이상, 5% 미만 정도로 입는다」가 男 25.6%, 女 50.1%로 나타났다. 40-50代에서는 「자

<表 4>

우리 옷의着用程度

단위: %, N: 男 690, 女 722

항 목	연 령		10 - 19		20 - 39		40 - 59		60 이상		총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안입는다			91.7	81.7	71.9	40.6	52.6	1.0	0.3		42.3	18.5
1% 이상 5% 미만			5.8	13.3	25.6	50.1	40.8	8.5	0.6		27.8	22.5
5% 이상 10% 미만			0.8	3.2	1.0	5.3	1.5	10.9	0.9		0.9	5.0
10% 이상 15% 미만						1.4	1.0	15.1			0.3	4.8
15% 이상 20% 미만						1.0	1.0	53.9		1.0	0.3	15.9
20% 이상 25% 미만								6.0				1.7
25% 이상 30% 미만								1.2	1.3	1.6	2.2	0.7
30% 이상 35% 미만								1.0	0.9	0.5	0.1	0.4
35% 이상 40% 미만								0.5	3.6	1.0	0.9	0.4
40% 이상 45% 미만									33.0	53.6	6.9	16.4
50% 이상 55% 미만									15.4	5.7	3.6	1.5
55% 이상 60% 미만									20.2	13.9	6.5	3.8
60% 이상									18.2	13.8	4.9	4.3
무 응 답			1.7	1.8	1.5	1.7	3.1	2.8	3.8	2.7	2.9	2.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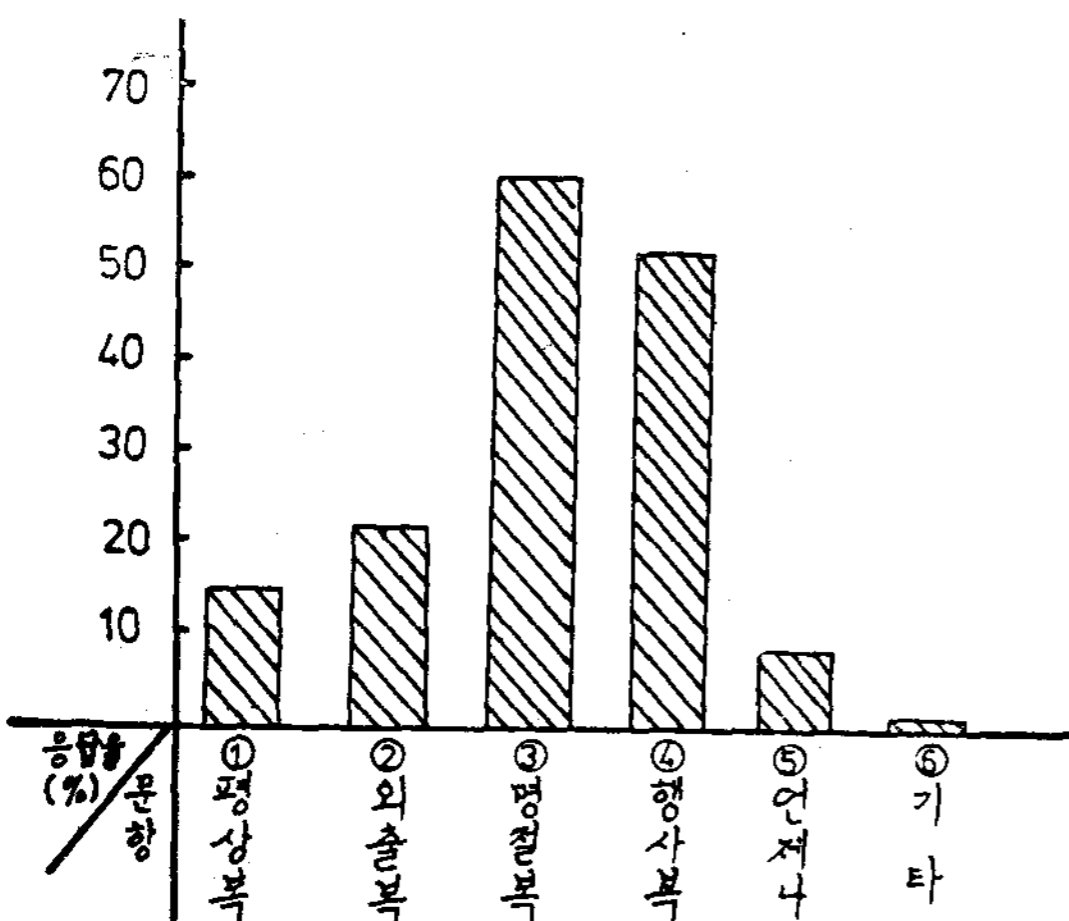
기 의생활의 15% 이상, 20% 미만 정도로 입는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60代 이상에서는 「자기 의생활의 45-50% 정도 입는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하였다.

생활정도별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우리옷 착용율이 높았다.

(3) 우리옷의着用用途<圖 2>

「명절복으로 입는다」가 60%로 가장 높은 비

<圖 2> 우리옷의着用用途



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의 順位가 「잔치나 제사 등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 입는다」로 역시 높은 응답율(52.8%)을 보이고 있다.

3. 우리옷에 대한 意識

(1) 우리옷에 대한 자부심<표 5>

성별·연령을 넘어 거의 모두가 우리옷에 대한 自負心이 아니면 평범한 느낌이라는 肯定的이고 밝은 意識들을 지니고 있었다.

(2) 衣服 機能的인 側面에서 본 우리옷에 대한 意見

社會制度의 變遷은 항상 衣生活의 變化를 隨伴하여 왔다. 社會的 近代化와 더불어 꾸준히 成長해온 民主化의 傾向에 의해 우리 衣生活도 民主化되었다.<sup>3)</sup> 民主化된 衣服機能上의 중요한 조건은 ① 아름답고, ② 위생적이어야 하며, ③ 활동적이고, ④ 경제적이어야 한다.<sup>4)</sup>

① 美的인 側面에서 <표 6>, <표 7>

衣服의 美的인 面은 우선 外觀上으로 나타나는 形態(Design)와 그 形態를 構成하기 위한 色

3) Collier's Encyclopedia, Vol. V. The Crowell-collier Publishing Co. New York, 1961, p.357.

4) 橋本貴美等 被服學概論, 建帛社, 1972, pp.55-56.

<表 5>

우리옷에 대한 自負心程度

N; 1,412, 단위; %

항 목	년 령		10-19		20-39		40-59		60-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1.7	60.0	50.5	57.2	47.0	45.0	38.1	37.1	46.7	48.9
평범하게 생각한다			43.3	35.0	43.6	38.0	49.0	50.5	57.1	61.9	48.4	47.2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1.7	2.5	1.0	1.9					0.6	1.3
무응답			3.3	2.5	4.9	2.9	4.0	4.5	4.8	1.0	4.3	2.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表 6> 美的 側面에서 본 우리옷(형태면)

N; 1412, 단위; %

문항	① 균형미가 있다	② 울동미가 있다	③ 통일감과 조화미가 있다	④ 세부장식이 아름답다	⑤ 개성미가 있다
예	82.7	60.5	88.4	78.1	25.6
아니오	16.0	37.5	10.6	20.3	72.3
무응답	1.3	2.0	1.0	1.6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7> 美的 側面에서 본 우리옷(材質面)

N; 1412, 단위; %

문항	⑥ 우리옷에 사용되고 있는 옷감의 색상, 질감이 한복과 조화를 잘 이룬다.		
	◎ 여름용	◎ 춘추용	◎ 겨울용
예	89.7	85.5	93.7
아니오	8.3	13.0	4.3
무응답	2.0	1.5	2.0
계	100.0	100.0	100.0

彩를 지닌 材質(옷감)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服裝의 要素<sup>5)</sup>라고 불리워진다. 또 옷의 形態를 이루고 있는 것에는 線, silhouette, detail, trimmings 등이 있다.<sup>6)</sup> 그러므로 아름다운 옷이 되려면 먼저 材質의 무늬·色相·觸感 등이 옷의 形態와 어울려야 하고, 그 形態를 이루고 있는 線과 silhouette, 그리고 使用된 detail과 trimming이 잘 調和되어서 全體的인 統一感和 律動美·均衡美가 있어야 하며, 또렷한 個性美가 있어야 한다.<sup>7)</sup> 우리옷을 이러한 審美上의 基準에서 調査한 結果는 <표 6>~<표 7>과 같다.

調和美·律衛美·均衡美가 있고 detail이 아름답다는 의견은 많으나, 個性美는 없다는 쪽의 긍정율이 매우 높다. 이는 우리옷이 아름답기는 하나 그다지 다양하지는 못하다는 결과가 되겠고, 게다가 個性을 살릴 수 있는 「입는 방법」과 섬세한 장식<sup>8)</sup> 들이 잊혀져감에 따라, 우리옷의 個性美가 제대로 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結果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材質面에서는, 우리옷에 쓰이는 옷감의 무늬나 質感이 「우리옷과 調和를 잘 이룬다」에 압도적인 肯定率을 보이고 있음은 韓服地의 色相이나 무늬·質感 등은 現代人의 기호를 잘 따르고 있다는 結果로 생각된다.

② 活動的인 側面에서 <표 8>

「작업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응답율이 매우 높다. 우리옷의 着用率이 낮음으로 인해, 우리옷의 着用과 活用이 서투르다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일수록 「불편하다」는 응답율이 높아, 10代는 98.8%, 20-30代는 94%나 된다. 이렇게나

<表 8> 活動的 側面에서 본 우리옷

N; 1001, 단위; %

항 목	년 령				계
	10-19	20-39	40-59	60	
활동에 매우 편하다		0.5	2.5	12.9	6.2
활동에 큰 불편은 없다	1.2	5.5	17.2	35.3	28.6
활동에 매우 불편하다	98.8	94.0	80.3	51.8	6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 유송옥, 복식의 장학, 수학사, 1975, p.176.

6) 유송옥, 前揭書, pp.66-65.

7) 遠藤教三, 服裝とその美學, 造形社, 1974, pp.278-286.

8) 김희진, 매듭과 多繪, 서울, 광명출판사, 1974, pp.13-15.

불편해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앞으로 우리옷을 얼마나 입을 줄 것인지, 이는 훗날 우리옷의着用率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③ 衛生的인 側面에서<표 9>

소화작용에는 별다른 障礙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고, 여자의 경우 응답자의

80.1%가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며 48.9%가 호흡에 장애를 받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치마말기의着用部位가 가슴에 매게 되어있어 이때 가슴에 加해지는 압력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우리옷의 防寒 効果는 良好한 편이나 防暑에는 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表 9> 衛生的 側面에서 본 우리옷

N : 1002, 단위 ; %

문항 성별	① 소화장애가 온다		② 가슴에 압박감을 느낀다		③ 호흡이 가쁘다		④ 방한에 좋다		⑤ 방서에 좋다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그 령 다	3.6	3.9	1.3	80.1	4.6	48.9	58.1	54.6	43.5	9.8
그 령 지 않 다	96.4	96.1	98.7	19.9	95.4	51.1	41.9	45.4	56.5	9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經濟的 側面에서<표 10>

購入·세탁·손질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수입 정도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월수입이 낮을수록 우리 옷이 양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우리 나라 既成服 購入 實態를 所得水準別로 分析한 IWS의 調査報告書에 의하면 生活水準이 낮을수록 注文服보다가 既成服을 많이 購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따라서 이렇게 월수입에 따라 의견에 차이가 있음은, 低所得層에서는 既成

<表 10> 經濟的 側面에서 본 우리옷

N : 1051, 단위 ; %

항 목	월 수 입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
	양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56.2	55.2	29.1	21.2	24.0	36.0			
거의 비슷하다		23.0	24.3	30.0	38.0	30.1	30.4				
양복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20.8	20.5	40.9	40.8	45.9	3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服으로서의 우리옷과 洋服을 비교한 의견이 많았고, 高所得層에서는 注文服으로서의 우리옷과 洋服을 비교한 의견이 많았다는 데서 온 結果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옷 既成服이 洋服 既成服보다 보급이 덜 되었고 단가가 洋服보다 더 비싼 반면, 注文服의 경우는 우리옷 注文價格이 洋服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우리옷 不着用의 理由<표 11>

이상으로 우리옷의 衣服機能的인 面을 조사했는데, 그러면 우리옷이 洋服에 밀리게 된 데에는 그 衣服機能上의 短點 중 어떤 問題가 가장 큰 原因이 되고 있으며 그외의 우리옷 不着用의 理由는 무엇인가를 調査한 結果는 <표 11>과 같다 「活動에 不便하다」가 男 54.9%, 女 57.7%로

가장 큰 原因이 되고 있고, 「갓추어 입기가 번거롭다」와 「옷손질이 번거롭다」가 그 다음을 따르고 있다.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비교적 우리옷을 많이 입어본 40代 以上の 高齡層에서는 「불편하다」든가 「옷손질과 입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등, 옷자체에서 느끼는 불편이 主要原因을 이루고 있지만 30代 以前の 젊은 층에서는 옷자체에서 느끼는 불편 이외에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또는 「우리옷이 없고」, 「미혼인 때문」이라는 등의, 意識에서 오는 원인이 적지 않게 나왔다. 더구나 우리옷을 「결혼을 한 사람들만 입는 옷」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은 思考와 情感의 많은 變化를 느끼게 한다.

9) — , 大都市 消費者衣類購入實態調査結果報告書, IWS 한국사무소 1975, p.15.





<表 14>

子孫들의 우리 옷 着用에 관한 의견

N ; 1412, 단위 : %

항·목	연 령		10-19		20-39		40-59		60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 자손들에게 한복을 항상 입힐 필요가 있다	1.7	5.3	4.0	5.6	5.0	6.0	10.7	8.2	5.5	6.8		
② 가끔은 입힐 필요가 있다	90.0	88.7	83.1	86.8	85.0	86.0	86.9	88.7	85.8	86.3		
③ 자손들에게 한복을 입힐 필요는 전혀 없다	8.3	3.3	5.0	3.7	7.0	6.0	1.2	1.0	6.2	6.0		
무응답		2.7	7.9	3.9	3.0	2.0	1.2	2.1	3.5	1.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Ⅲ. 提言 및 結語

(1) 오늘날 우리옷의 購入은 마춤복(64%)과 既成服(17.8%)의 형태로 대부분이 家庭을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손질에 있어서도 68%의 경우가 세탁소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2) 60代 以上の 노인들(자기 衣生活의 45-50% 정도 입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과 주부들(자기 衣生活의 15-20% 정도 입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을 제외한 이외의 응답자들은 着用率이 꽤 저조했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또 연령이 낮을수록 着用率이 떨어졌다.

(3) 着用用途는 平常服(12.8%)·恒時服(9.2%)으로서의 용도보다가 名節服(60%)·잔치나 祭祀 등의 行事服(52.8%)·外出服(22%)으로서의 用途가 더 높았다.

(4) 衣服機能面에서 우리옷을 보았을 때,  
○ 長點은 ① 均衛美·律動美·統一感·調和美가 있고 細部裝飾이 아름다우며,

② 材質의 質感·色相이 形態와의 調和를 이루고,

③ 防寒에 좋으며, 특히 남자옷은 편안하고 防濕에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短點은 ① 個性美의 부족, ② 活動性의 결여, ③ 「갓추어 입기」와 「옷손질」의 번거로움, ④ 여자옷의 경우, 방서에 좋지않음과 치마말기로 인한 가슴의 압박감·호흡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短點들은 우리옷 不着用의 主要原因이 되고 있었다.

○ 購入·세탁·손질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성복의 경우는 우리옷이 양복보다 더 비싸게 들

고 注文服의 경우는 우리옷이 더 싸다는 結果를 얻었다.

(5) 우리옷 着用의 理由는 ① 우리 固有의 옷이니까 입는다(36.8%). ② 품위 있고 아름다워서 입는다(20.1%). ③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입는다(17.7%). ④ 行事에 必要해서 입는다(17.8%). ⑤ 우리 정서가 담긴 때문에 좋아서 입는다(6.5%). ⑥ 기타(1.1%)의 순위로 나타났다.

(6) 現代人의 우리옷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높았고,

자신의 앞으로의 의생활 계획은, 60代 以上の 高齡層에서는 아직도 「우리옷을 주로 입겠다」는 우리옷 手先의 傾向이었으나 50代 以前에서는 「洋服을 주로 입겠다」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옷을 입겠다」고 하였고, 「子孫들에게도 가끔은 잊지않고 우리옷을 입힐 필요가 있다」에 거의 모든 응답자가 긍정을 하고 있어, 現代人의 意識속에 「우리옷을 입고 지니겠다」는 생각이 內在하고 있다는 結果를 얻었다.

以上과 같은 結果에 依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우리 나라의 經濟的·社會的 側面을 미루어볼 때, 衣服의 製作과 손질이 다시 家庭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製作에 있어서는 既成服化의 可能性이 짙다고 본다. 이에 봉제업자나 세탁업자들에게 우리옷 固有의 美를 잃지 않은 올바른 製作·손질법을 普及시켜야 할 것이며 理想的인 既成服化에 대한 研究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이미 우리 옷 着用에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계서도 着用率이 낮아졌다는 점과 젊은 世代는 우리옷이 아닌 洋服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적은 가짓수의 옷으로 여러 경우에 적절히 입도록 옷을 구비하려는 現代人의 被服費 消費性格<sup>10)</sup>을 생각할 때,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우리옷 着用率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번 形成된 態度는 그후에 接하는 모든 事物에 대한 露出(Exposure), 認識(Perception) 및 記憶(Retention)에 選擇的 影響力을 행사하므로, 새로운 經驗은 종전의 經驗이 남긴 모든 意識上의 흔적을 완전히 制壓할만한 強力한 것이어야 한다.<sup>11)</sup> 그러므로 우리 옷이 우리 衣生活와 좀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우리 옷의 短點으로 밝혀진 우리 옷 不着用의 理由가 제거되어서 「強하고 새로운 經驗」의 創案과 供給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새로운 經驗을 이루기 위하여,

① 조끼허리를 널리 普及하여 치마말기로 인한 가슴의 압박감을 덜어주고,

② 衣服構成上의 다각적인 變化應用 및 簡素化로 파티복·평상복·작업복 등 着用用途에 알맞는 여러 가지 形態의 우리옷을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며,

③ 個性美를 위해서는 바른 着用法에서의 맵씨·裝飾利用·色相配合 등의 기교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다음에는 現代人의 嗜好 및 衣裳心理에 대한 다각적인 調査·研究를 통해 우리옷의 色相·構成·材質 등을 現代人의 嗜好에 좀더 가까와지도록 하여 우리옷에 대한 關心度를 높여야만이 더 많이 着用되고 다듬어지리라 생각된다.

### Abstract

#### A Study on Modern People's Consciousness and Wearing Practice of Korean Costumes

Hwang, Chun Sub

It is significant for developing the future for us to know our present age. In order to preserve our Korean costume as a folk clothes retaining our distinguished independent characteristics and to help design the tomorrow of our Korean costume playing a role as a racial to develop the world clothing culture,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modern people's consciousness and wearing practices of Korean costume by questionnaire and interviewing method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as follows:

(1) At present, Korean costumes were purchased as customtailored(64.0%) and as ready-made(17.8%) and most of them were not made at individual homes.

The laundry and ironing of them were carried out at laundry shops(68.8%). Considering our pres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sewing, laundry and ironing will not be carried out at homes again in the future and ready-made costumes seen to be produced in a large scale in the future.

Garment makers and laundry shop operators should be trained how to make our Korean costumes retain our traditional beauty in the course of their production and laundry and the makers of ready-made costumes must make research how to efficiently produce ideal ready-made costumes by adopting the synchro system in their work division.

(2) The age group wearing Korean costumes most frequently was the aged people over 60 (their wearing rate; 45%—50%) and the group wearing them most frequently next to the aged people over 60, was housewives (their wearing rate; 15%—20%).

Excluding aged people and housewives, other respondents did not wear Korean costumes very frequently. Men's wearing rate was lower their wearing rate was the younger their ages were and the less their monthly incomes were.

Korean costumes were used for holiday and festival(60%), wedding and funeral ceremonies (52%), visiting and working(22%), casual wear(12.8%) and home wear(9.2%). The use of

10) Collier's Encyclopedia, Vol. VIII. The Crowell-Collier Publishing Co. New York, 1961 p.357.

11) William L. Rivers, *The Mass Media* Harper & Row New York, 1964, pp.10-11.

Korean costumes as casual and home wears, was lower than the use for holiday, festival, visiting and working.

Under our present circumstances in which our Korean people use both Western style clothes and Korean costumes, our Korean costume has lost its position as a basic and necessary requirement in Korean people's daily life and become a ceremonial and fancy costume. It is natural that the times and life change everything in our daily life. Our costume has to be made as good ceremonial and fancy clothes satisfying modern sensibility according to its new role. In order for us to get close with our clothes, a keen study must be carried out to create the color, material, style, function and harmony of the Korean costume matching the times.

(3) The 47.8%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proud of our Korean costume as our folk clothes, 47.6% replied that thought them just common and 1.1% responded that they were ashamed of it. Most of them were affirmative in feeling pride with our Korean costume.

(4) Considering the functional aspect of Korean costumes, their strong points were symetric beauty, rhythmical beauty, unity feeling, harmonical beauty and detailed decorations. Their common shortcomings were lack of individuality and inadequateness for active life. The shortcomings of woman costumes were suppressing breast, making respiration difficult and inadequateness in summer time.

The main reason not to wear our Korean costume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inconvenient for active life. As a measure to eliminate such shortcomings, 1) the suspension system of skirt to remove the suppression of breast should be generally adopted, 2) they should be simplified in their structure to make them convenient for active life and adequate in wearing them in hot weather in an extent to which the traditional beauty of the costume may not be lost and 3) a new technique must be explored for showing individuality by wearing method and new arrangement of colors and decorations.

(5) The reasons desiring to wear Korean costumes were classified as follows:

- A. Korean costumes are our traditional clothes(43.4%).
- B. Korean costumes are noble and beautiful(26.8%).
- C. They are accustomed to wear Korean costumes by habit(19.5%).
- D. Korean costumes are necessary for attending ceremonies(9.5%).
- E. Miscellaneous reasons(0.8%).

Classifying these reasons into age groups, the high age group over 40 wore them because they were easy to wear by habit and the low age group of 10—30 never thought that they were easy to wear by habit.

Considering that even those who were accustomed to wear Korean costumes showed a low wearing rate and that the young generation were accustomed to wear Western style clothes rather than Korean costumes, the wearing rate of Korean costumes will be reduced in the future if such trend continues. It is urgent for us to make our best efforts in order to enhance the interest of young generation in Korean costumes and not to make them lose the strong points of Korean costume in the future.

(6) Considering the plan of the respondents on what kind of clothes they were going to wear in the future, among the age group over 50, those who wanted to wear only Korean costumes were 24.8%(men) and 35.1%(women), those who wanted to wear 49.7%(men) and 47.4(women), those who wanted to wear chiefly Western style clothes were 20.7%(men) and 14.4%(women) and those who wanted to wear only Western style clothes, were 2.4%(men) and 2.1%(women).

This shows that the general tendency to wear only or chiefly Korean costumes is more prevalent than that to wear only Western style. Among the age group under 50, the tendency to wear Western style clothes was conspicuous and most of the respondent answered that they would wear chiefly Western style clothes and Korean costumes occasionally. Only 5.4% of the respondent answered that they would wear only Western style clothes and this shows

that many respondents still wanted to wear Korean costumes.

Those who wanted their descendants to wear what they desire, were 50.1%(men) and 68.8%(women) and those who wanted their descendants to wear Korean costumes occasionally, were 85.8%(men) and 86.3%(women). This shows that most of respondents wanted their descendants to wear Korean costumes. In order to realize,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our descendants recognize the preciousness of our traditional culture and modify our Korean costumes according to their taste so that they may like wearing them.